

봉축특집
불기 2522년

화엄사 조실
도천 스님

도천 스님은

1910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13세에 금강산 마하연에서 수월 스님의 제자인 신묵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 15년간 모시며 참선했다. 그후 20여년간 금강산 마하연, 신계사, 묘향산, 유점사, 법왕사 등에서 수행한 스님은 1960년 한국전쟁이후 남한으로 내려왔다. 범어사와 내원암, 칠불암, 해인사 선방을 거쳐 금강산과 산세가 가장 유사한 대둔산 태고사에 방부를 들이고 공양수 소임을 보았다. 1·4후퇴 때 태고사에 빨치산이 들어오자 목언을 하고 7일 단식을 하다 마지막으로 태고사에서 나왔다. 전쟁 중에 건물 7동이 잣대미가 된 태고사로 돌아온 스님은 1962년 윤막을 하나 짓고 술일가루와 나물죽을 먹으며 46년간 문무불출하며 지금까지 불사를 겸한 노동수행(勞力)을 이어오고 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창규(百丈海規)에 따라 늘 묵언하며 계행을 지키고 보살행을 실천해 온 스님은 '수월가풍(水月家風)'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현재 화엄사 조실 겸 태고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무수한 도인(道人)의 출현을 기약하며 태고사 중창불사에 심혈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12곳의 좋은 터 가운데 하나인 충남 금산 대둔산 태고사(太古寺, 주지 도천, 원효 대사가 '도인이 날 땅'이라 하며 춤을 추었다는 길지(吉地)에 동지를 튼 밭이다. 2년 전 이맘때 두 달간의 구도여행 도중에 참배했던 태고사는 여전히 맑고 투명하 녹색 기운을 내뿜고 있다. 비 내린 뒤 더욱 웅장하게 다가오는 산세는 '대둔산의 도인' 도천 큰스님의 모습처럼 범접하기 힘든 신령함을 간직하고 있다.

나무로 만든 계단을 따라 올라가 송시열(宋時烈 · 1607-1689) 선생이 쓴 '석문(石門)'이란 휘호가 새겨진 바위 일주문을 지나니, 큰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기자의 두 손을 잡고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라"고 당부하며 염주를 손에 쥐어주시던 큰스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진다.

질 아래서 보면, 태고사 뒤는 기묘한 모양의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왼쪽 봉우리는 관음봉 또는 문수봉이라 불리는데, 이런 봉우리가 있는 절은 큰 도인들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대못을 박았고, 도천 큰스님은 일일이 대못을 뽑았다. 절 뒤편 중앙에 있는 바위는 의상 대사가 올라가 춤췄다는 의상대이다. 절 앞쪽으로는 저 멀리 서대산 천자봉이 보이는데, 수많은 작은 산 봉우리들이 문무백관(文武百官)이 되어 태고사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상이다. 큰스님이 범종각을 절벽 위 바위 위에 지은 까닭은 종소리가 바위를 통해 퍼져나가 태고사를 둘러싸고 있는 대둔산의 잠든 응을 깨우기 위해서라고 한다.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 원주스님이 큰스님의 건강을 염려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조실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다. 마침 과로로 눈에 통증이 생겨 쉬고 계시던 큰스님은 반갑게 불청객을 맞이 하신다.

"큰스님, 2년만에 뵙겠습니다."
"그래, 뭐하러 왔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큰스님 법문을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여, 일박에 몰라."
큰스님은 "잠시 누워서 쉬겠다"며 양해를 구한 후 휴식을 취한다. 다행히 큰스님은 눈이 좀 불편한 것 외에는 아직도 정정하시다.

큰스님이 누워 계시자, 옆에서 모시던 한호응(70 · 대전 도마동) 거사가 평소 곁에서 듣고 본 이런 저런 말씀을 들려준다.

"요즘 큰스님은 13세에 출가해 금강산 마하연에서 은사 묵인 스님을 시봉하던 때를 자주 회상하시곤 합니다."

어린 나이에 당돌하게도 도인이 되겠다는 큰 뜻을 품은 도천 스님이 13세 때 만난 '금강산 도인' 이 바로 신묵인 스님이다. 스님은 15년 동안 수월 스님의 수제자인 묵인 스님을 시봉하며 그토록 간절히 알고자 했던 도(道)를 뒤었다. 어떤 대꾸라도 하면 버락을 내릴 정도로 엄했던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행이었다. 낮에는 팻나무를 하고, 밤에는 짚신을 삼고 솥불에 공양을 지었다. 물이 부족해 손을 씻지 못해서 갈라터질 때면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쌀이 부족해 끼니를 거르며 정진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 짚신을 신은 채 마하연에서 연화대까지 600m 정도의 눈길을 혼자서 다 치워야 했다.

이런 수행담을 들던 한 거사가 어느 때 도천 스님께 질문했다.



“수행이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일·지계행이 그대로 수행이니
진정 하심이 될 때 비로소 준비가 된 것”

"스님, 힘드시면 집에 가지시, 왜 그토록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도(道) 하나 얻으려고..."
스님은 그 어떤 고행을 하더라도 도 뒤는 본분사를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도 하나 얻으려고" 오늘도 수많은 구도자들이 좌복이 닳도록 선방에 주리를 틀거나, 밤낮 없이 염불·주력하거나 절하며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출가한 지 강산이 여덟 번이나 변하는 동안, 오로지 '도 하나 얻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수행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내년이면 고금에 드문 백수백

홍; 99세의 세대에서 풍겨나오는 법력은 과연 '한국 불교의 살아있는 전설'이란 수식어를 실감케 한다.
분단 이후 금강산에서 하산한 도천 스님은 울릉도를 빼고는 전국의 산하를 직접 걸어나다며 만행했다. 그러다 스님은 인연의 땅, 태고사를 만났다. 태고사는 금강산 마하연과 가장 유사한 곳이었으며, 도인이 많이 나는 도랑임을 직감했기에 평생 눌러왔던 것이었다.
한 거사와의 대화가 어느 정도 끝난 후, 큰스님은 법성행(69) 회주보살을 불러 도량 곳곳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 명하신다. 회주보살을 따라 나선 태

고사 도량 곳곳은 불사가 진행중이다. 잠시도 안일과 편안함을 용납치 않는 큰스님은 올 11월 선방 완공을 목표로 노구를 이끌고 수시로 공사를 지도하신다. 대둔산 지역(地脈)이 잘 흘러내린 선방에는 공부인들과 어르신들이 정진하게 된다. 큰스님은 선방과 더불어 경허·수월·묵인 선사를 모신 조사전과 개인 수행용 토크룸도 더 지을 생각이다.

1962년부터 일을 수행삼아 불사를 계속해 온 큰스님은 오늘날의 태고사를 이룩했지만, 한반도 나뉠 정도로 법당을 지은 적이 없다. 국고보조금으로 절을 지으면 나라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고사는 철저히 금강산 마하연의 건축양식을 본따서 조성할 수 있었다.

큰스님이 얼마나 철저하 근검절약하며 노동수행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일화는 무수하다.

옛날 어려운 시절, 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큰스님은 혼자서 얼마나 잘 먹고 사나' 하고 몰래 엿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큰스님은 놀랍게도 솥뚜껑과 물 한 모금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안 인부들은 '참 스님이시다'라며 더욱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훗날 택시기사가 된 한 인부가 전한 증언이다.

처음 태고사를 일할 때,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 헤진 승복을 입고 대전까지 물건을 사러 간 큰스님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대전역전시장 자판에서 3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사 드신 일이 있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해 돈을 쓴 유일한 일이었지만, 큰스님은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셨다고 한다. 또 한번은 공양간의 수채 구멍에 밥 한 톨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보신 큰스님이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너무나도 명백한 인과(因果)의 도리를 알기에 쌀 한 톨도 버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태고사에 정착하기 전, 아자방(阿字房: '亞' 자 모양으로 방고래를 만들고 구들을 놓은 선방)이 있는 칠불사에서 정진할 때는 공양간에 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때인가 쌀이 바닥났을 때, 매일 단지에 공양 해먹을 만큼의 쌀이 저절로 채워지는 신비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검소하게, 스스로 '태고사의 머슴'이라 부르며 깨달음의 빛을 감추고 살아온 큰스님이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심과 보살심은 더욱 스님을 드러나게 만들었다.

"큰스님은 '엄장 소멸만 하면 병도 물러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요. 집에서 나름대로 정진한 신도들이 오면 먼저 아시고 자상한 법문을 해주지만, 욕심에 찌들어 법문을 해달라고 하면 입을 다물고 말죠. 수행이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하심이 될 때 비로소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30년 전, 고지 생활을 하다가 척추를 다치고 유방암에 걸려 태고사에 찾오는 법성행 보살은 하루 1000배, 하루 관세음보살 정근 3만번을 한 후 어느새 병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고 한다.

태고사에 찾아오는 불자들은 큰스님이



봉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축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주 지 주정산 부주지 김세운

총무 김광언 재무 유대명 노전 김구해 부전 지상규
신도회장 이금복

고문 배두술 권영철 박영기 송대현
지도위원 권영우 정우성 신선숙 방경자 최선화
부회장 김옥동 강숙일

총무 최계구	서초지회장 정근택	거사회장 남극렬	화주 이향숙
교무 윤윤식	강남지회장 한형희	지장회장 정기수	화주 임숙자
재무 이상민	송파지회장 이호인	교원봉사 양학기	화주 정인순
재무 김연옥	중구지회장 조장목	낙원회 최보연	화주 정희순
홍보 최현	동작지회장 현정국	다도회 장홍숙	화주 송복심
홍보 신중선	강북지회장 이종완	관음회 임선례	
기획 서양원	강서부지회장 김충겸	합창단 이향숙(총무)	
조직 김진홍	경기지회장 김수용	자모회 표정숙	
설의 김경자	동대문지회장 김학복	상락회 오연숙	
사업 이상임		청년회 박문호	

● 봉축행사안내

- 봉축 법요식 : 5월 12일(음4월8일) 오전 11시 / 4층옥불전
- 점 등 식 : 5월 11일(음4월7일) 저녁 7시 / 4층옥불전
- 제 등 행 열 : 5월 12일(음4월8일) 저녁 6시 / 서초구청마당
- 특별기도 : 4월 21일 - 5월 11일 저녁 9시 / 4층 옥불전
- 특별사시불공 : 4월 21일 - 5월 11일 오전 10시 / 대불보전
- 봉축동참불공 : 5월 12일 오후 1시 30분 / 7층대불보전
- 봉 축 공 연 : 5월 12일(음4월8일) 오후 2시 / 옥불보전
- 어린이 글 그림전지 : 5월 11일 오전 11시 / 관문사
시상식 - 5월 12일 오후 2시 / 4층 옥불전

관문사 오시는길

대한불교 천태종 서울 관문사 www.gwanmunsa.co.kr 주소: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전화: 02)3460-5300